

# 창업융합전공 트랙개설에 관한 연구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임진혁<sup>1</sup>, 권혁<sup>2\*</sup>

<sup>1</sup>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교수, <sup>2</sup>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ck for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Jin-Hyuk Im<sup>1</sup>, Hyuk-Kwon<sup>2\*</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Kyongg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Glocal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onkuk University

**요약** 전 세계적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설계방법 제시 등에 부족함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K대학에 적합한 창업교육 활성화 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국내외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 분석, 교수자, 현장전문가, 교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창업교육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서는 실제 창업을 위한 실행 방법론, 기업가적 인재 양성,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전공)에서 벤처창업, 기업가정신융합, 소셜벤처 활성화와 같은 3대 트랙을 도출하였고, 트랙별 전공역량 및 학습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융합교육, 트랙개설, 전공

**Abstract**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worldwide and the number of universities that open related subjects have been increasing. K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was selected as one of the leading universities in entrepreneurship in 2014, and has continued to grow quantitatively by providing support and education related to entrepreneurship on and off campus. In addition, major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derived by conducting written or face-to-face interviews and advisory meetings with instructors, field experts, and education demanders for environmental analysis. Based on this, three major tracks(venture start-up,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and social venture activation) were derived, and major competency and learning goals for each track were present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this study to be more effectively accepte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objectives of each track, the capabilities pursued, and the courses that help students' progress. Therefore, in the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present the goals for each track, the curriculum road map, and the detailed curriculum of the convergence major, and at the same time, research to match the appropriate teaching method for each newly opened subject will be required to increase educational effectivenes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Track Opening, Major

\*Corresponding Author : Hyuk-Kwon(k21720222@kku.ac.kr)

Received September 29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8,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 1. 서론

최근 대학교육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학령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이 역전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 및 학과가 다수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1].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며 산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이에 요구되는 현장에서의 직무역량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사회 수요에 부합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사구조의 혁신 및 고등교육 체제 개편 등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지식을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기에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융합 교육은 전통적 학문 영역에 기초한 지식의 한계를 넘어 통합적 관점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2.].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기업가 마인드 고취를 국가 혁신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하였고, EU에서는 “기업가 마인드 없이 유럽의 미래가 없다”는 기치(旗幟) 아래 기업가 마인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EU에서 미국과의 경제성장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가정신의 부재’를 지목하고 지난 2006년 오슬로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기업가정신함양을 필수 혹은 의무 교육화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직업 경로의 대안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이러한 맥락의 연장 선상에서 최근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실행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초월하여 사회 인프라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대학의 창업교육은 직업탐색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검토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5].

한편 대학교육 과정에서의 트랙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관련된 학술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 연관된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6].

또한, 사회 수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 수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時宜性)이 반영된 트랙제의 도입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7].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시대 흐름과 사회변화로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더불어 융합적 역량과 융합 교육이 더욱 강조되면서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융합 교육으로 적절한가?’,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전공 교육 내 트랙을 개설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개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K대학의 창업융합전공 트랙 개설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앞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한편 K대학의 사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K대학에서는 대학 비전을 수립하면서 융합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회 수요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개설하고 트랙제를 운영한다’고 소개하는 등 융합 교육, 창업교육, 트랙제 운영을 K대학이 수행하고 있기에 본 사례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방향을 제시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가운데 전문가 및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토크이 기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K대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라 트랙 개설을 제안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K대학의 창업교육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주요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K대학에 도입·적용 가능한 창업 융합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Ronstadt의 New School개념은 Babson College 창업 교육과정의 기반 모형이고, McMullan와 Long의 전략적 독창성 모형은 캐나다와 호주의 여러 대학에 창업 교육 학위 과정의 기반 모형이다. 또한,

Vesper은 창업 교육 분야를 구체화시켜 널리 알려진 연구자로 학계 및 산업계에서 인정받고 있기에 창업교육의 핵심모델을 정립한 Ronstadt의 New School 모형, McMullan과 Long의 전략적 독창성 시각, Vesper의 창업관 등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K대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1 Ronstadt의 New School 모형

Ronstadt[8]는 창업교육에 있어서 낡은 학교(old school)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학교(new school)의 개념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존의 창업교육법이 창업을 향한 과단성 있는 행동을 유발하고 독려하는데 치중하거나 사업수행계획을 잘 짜는데 집중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창업교육과 창업가를 양성하는 단편만을 제시한 것으로 이런 자질만으로 훌륭한 창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9]. 이에 Ronstadt의 New School 론에서는 창업 행위를 하는 것이 과감한 행동에 의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다. 또한 창업가에게 적합한 기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과 경험이 다르거나 부족해도 성공하는 창업가가 여러 형태로 발견되는 등 창업의 이유와 시기가 광범위하게 분포함을 전제로 하기에 창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

이러한 맥락에서 Ronstadt[11]는 창업과정 교과목 설계구도를 구조화된 교실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익히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실습을 통해 비정형적이며 체험적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등 흡수식 지식획득에서 차츰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토대로 체험적 학습으로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 2.2 McMullan과 Long의 전략적 독창성 시각

McMullan & Long[12]은 창업을 전략적 독창성(strategic creativity theory of entrepreneurship)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즉 전략적 독창성은 기업가의 창업행위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창조적으로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과정의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을

독창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충분한 생존능력을 가질 때까지 성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13]. 또한 창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성장잠재력의 크기보다는 진입을 중심하는 창조의 과정인 Startup Position과 자생적 성장력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를 창업의 전 과정으로 보는 Growth Venture Posi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독창성 이론을 전제로 창업교육은 새 사업 탄생과정과 성장가능한 사업개발이라는 연속적인 전략과 도전적 문제를 다루도록 구성하고 있다[14,5].

### 2.3 Vesper의 창업관

Vesper[16]는 창업을 사업 창조에 있어서 시작단계(start-up)에 국한된 행위로 파악하며, 창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다양각색으로 종류도 많지만 모종의 더 성공적인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발굴하고자 하였다. 창업 행위에 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facts)이 있고 배울 필요가 있는 좋은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이 있으며 사업을 시도하는데 있어 시도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기법(skills)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또한 McMullan & Long의 주장과는 달리 창업을 사업 초기단계로 국한시키고 중소기업 경영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존속단계와 성장단계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 및 사례에 의한 지식, 기술, 방법을 체험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교수 및 학습방법을 제시하며 기회의 탐지와 발견 그리고 기회를 빈틈없이 철저히 찾아 이용하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회를 체계적으로 찾는 노력보다는 기회를 만나게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중점적으로 유발, 즉 우연의 일치와 우연한 사건을 접했을 때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창업기회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다[1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업융합전공 트랙 개설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해 Vesper가 제시한 대로 사업의 시작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 창업기업의 성장관리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답은 과연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대학)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창업가를 보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기관에서 창업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이미 창업을 시행하였기에 다음 단계인 성장관리까지 교육영역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잠재된 창업가 혹은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모멘텀(momentum)을 제공하는 사업 시작에 집중된 교

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Shapero & Sokol이 제시한 대로 창업교육이 기존 경영학 범주와 차별화되고 창업 자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 개인적 특성, 창업 외부환경의 이해, 사업 활동의 시작을 유발하는 기회 창출과 창의성 개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 교육은 기존 경영학 분야에서 다소 소홀히 했거나 간과해왔던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체험학습, 새로운 것은 창조해 나기 위한 실습, 분석적 사고를 통한 실행 계획수립을 위한 활동 등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업과정 설계 시 개인의 자질이나 독창성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기본 원리를 익힘으로써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은 타 학문 분야와 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K대학의 경우 창업 융합 전공은 원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보다 실무/실용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K대학 홈페이지) 창업

이론, 창업학 등 이론적 교육보다 원전공을 한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접목하여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Shapero & Sokol의 기업가적 사건의 개념을 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Vesper, Ronstadt, McMullan, Shapero 등이 제시한 창업교육의 핵심맥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립하여 본 연구에서는 K대학의 현황 및 비전에 부합되는 창업융합전공 트랙을 개설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창업융합전공 트랙 개설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환경 및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회 수요에 부합되는 트랙 개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또한 본 연구

Table 1.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Major track opening procedure

Sortation	Content	Details	Period
1	Composition of advisory committee	Track composition of advisory committee	August 20–August 30, 2019
2	Environmental analysis and Issue Deduction	Environmental Analysis	September 2–October 8, 2019
		Opinion survey of experts and education consumers (Delphi, FGI)	
		Environmental condition analysis Results and issues	
3	Prior Research And advanced cases analysis	Prior research and excellent education Case analysis	October 21–October 31, 2019
4	Development Committee Review	committee open and elicitation result	November 1–November 15, 2019
5	Major Track Development	track Development	November 18–December 6, 2019
6	Talent Cultivation plan	Major ability	
		right people settled	

Table 2.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Major track Development composition of advisory committee

No	Affiliation	Major Field	Position	Career	Remarks
1	K Uni.	Management	Professor	Uni.5 years, Co.13 years	Research Director
2	J Uni.	Management	Professor	Uni.12 years, Co.20 years	-
3	KUni.	Korean literature	Professor	Uni.12 years	-
4	KUni.	economy	Professor	Uni.4 years, Co.7 years	Start-up have Experience
5	S Co.	Management	Researcher	Co.16 years	start-up work have Experience
6	S Co.	Management	Researcher	Co.23 years	Start-up have Experience
7	D Uni.	Management	Professor	Uni.7 years, Co.15 years	-
8	S Uni.	Management	Professor	Uni.4 years, Co.10 years	-

를 진행하기 위해 창업 융합전공 트랙 개설을 위한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은 전공자와 경력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창업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혹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Table 2와 같다. 한편,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통해서는 첫 단계로 창업융합전공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세 분야 즉 창업과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도, 필요성, 중요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의 개방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견 중 가장 공통된 의견, 심도 깊게 파악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보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여 델파이 기법 대상자인 자문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는 더 이상 델파이 기법에 참여한 자문단에서 추가적인 피드백이 없을 때까지 인터뷰 항목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 현황 및 이슈, 전공 특화 역량, 전공교육과정 개발 방향, 진출 분야 및 직무, 교과목 관련 의견, 당부사항 등의 인터뷰 항목을 개발하였다. FGI 인터뷰 대상은 K대학의 창업지원단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교육 및 현장에서 창업 실무경험이 있고, K대학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FGI를 진행한 기간은 지난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였고 일부 전문가의 경우 회신된 답변에 추가 질의를 통해 핵심 사항을 도출하는 등 추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3.2 연구 참여자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은 교내외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과목 교수진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인재상을 도출하고 필요 역량을 확인하여 창업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며, 전문가 의견 조사 대상은 다음 Table 3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 중 교수는 K대 창업융합전공 교과목을 최소 2년 이상 강의한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현장전문가는 현재 K대 창업지원단에서 운영 중인 창업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K대 창업지원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현황 및 이슈, 전공 특화 역량, 전공교육과정 개발 방향, 진출 분야 및 직무, 과목 관련 의견, 당부사항 등을 질의하였고, 기간은 지난

Table 3. Subject of expert opinion survey

No.	Affiliation	Work Experience
1	K Uni. Professor	10 years
2	K Uni. Professor	20 years
3	K Uni. Professor	10 years
4	K Uni. Professor	15 years
5	A FNDN. TL.	12 years
6	S Co. CEO (VC)	20 years
7	H Co. CEO	25 years
8	T Co. CEO	30 years
9	S Co. Executive	20 years
10	S Co. CEO	15 years
11	M Co. CEO	27 years
12	I Co. CEO	15 years
13	S Co. CEO	10 years
14	N Co. CEO	23 years
15	B Co. CEO	28 years
16	S Co. CEO	16 years
17	S Co. CEO	13 years
18	J Co. CEO	22 years
19	L Co. CEO	30 years
20	M abbr. administrator	19 years
21	P Co. CEO	20 years
22	J Co. CEO	15 years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전문가의 경우 회신된 답변에 추가 질의를 통해 핵심 사항을 도출 하는 등 추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able 4. Interviews with education consumers

No.	Affiliation	Period
1	K University 4th year	September 20, 2019
2	K University 2th year	
3	K University 3th year	
4	K University 4th year	
5	K University 4th year	September 27, 2019
6	K University 4th year	
7	K University 4th year	
8	K University 3th year	
9	K University 3th year	October 4, 2019
10	K University 4th year	
11	K University 2th year	
12	K University 3th year	
13	K University 3th year	
14	K University 2th year	
15	K University 2th year	

## 4. 연구결과

### 4.1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4.2 교육수요자 대상 FGI 결과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창업을 둘러싼 환경적 이슈와 이에 요구되는 인재육성 방향, 창업융합전공의 진출 분야 및 주 업무,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을 도출하고 반영

해야 할 필수 및 신규 교육과정(커리큘럼) 등의 제안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Table 5와 같다. 또한, 상기와 같이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FGI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이처럼 자문 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설문항목에 따라 교육 및

현장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창업 교과목 간 차별성과 교육의 다양성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즉 교과목명은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을 교육하는 문제가 목격되었다. 이에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Table 5. Key findings of expert opinion survey

No.	Sortation	core content
1	Environment Iss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ducation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understand trends in the time</li> <li>• There is a tendency to be influenced by the vis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school due to various interests of members and other majors</li> <li>• Issues where the ability to carry out continuous business such as corporate eth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problem solving, and fairness of distribution is highlighted in the startup field</li> </ul>
2	View of changes in the value and status of futu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phasizing the need for entrepreneurship training in a situation where companies are no longer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ir members</li> <li>•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artup education based o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moving from a large number of small items to a small amount of various types.</li> <li>•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emphasized to form the right entrepreneurial mind and values</li> <li>• Trainees, not experiments conducted in a theory-centered lab, become the subject of technology and demand technology, collaboration, and self-directed value</li> <li>• The need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more emphasized as opportunities for new business creation increase and the proportion of added value creation through entrepreneurship increases.</li> <li>• The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increasing as universities, which used to be the gateway to employment, must be turned into the gateway to entrepreneurship</li> <li>• One of the breakthroughs that will grow the economy is entrepreneurship, emphasi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helping to solve the youth job problem</li> </ul>
3	Direc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lent who creates creative ideas and has convergent thinking</li> <li>• Competent talents who can deeply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spond proactively to future changes</li> <li>•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ethical and hard-working talent who can solve problems, think creatively and flexibly and overcome various risks.</li> <li>•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alented people with the ability to collaborate and create opportunities through continuous entrepreneurship and cooperation</li> </ul>
4	Advancement field and 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planning (marketing and technology planning) and strategic work, convergence and process innovation, start-up consultant, securities firm</li> <li>• In charge of planning in places that create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pla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pread of social values, and places where innovation by field is required</li> </ul>
5	Competency to h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dentifying trends), ability to use information</li> <li>• Problem solving ability, logical thinking, creativity, leadership, humanities literacy, challenge spirit, network utilization ability, endurance, professionalism, determination, consideration required</li> <li>• Skills acquisition and utilization techniques in the field of start-up (business plan writing principle, start-up process, venture investment)</li> <li>• Global cultural and language skills, Sustainable management issues (social enterprise, social value, appropriate technology, entrepreneurial ethics)</li> <li>• Understanding the convergence mechanism, understanding the business model in the form of convergence</li> </ul>

Table 6. Key finding

No.	Sortation	Key points
1	Major advan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th classes focusing on experiences and ideas, discussions and presentations are more active than existing courses, and the range of exchanges with students from various departments can be broadened.</li> <li>• In the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major, similar subjects are taught in most subjects such as business plan writing and business modeling.</li> <li>• Due to the small number of courses, the choice of each semester is limited, a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nuclear major and the entrepreneurship major is insufficient</li> <li>• The curriculum is not systematized and the academic guidance to select the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major is insufficient.</li> <li>• Information on the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Major is insufficient and publicity is not well done.</li> <li>• Insufficient educational content for implementation after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lan</li> </ul>
2	Sugg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ompetencies obtained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be applied to all majors, so it is necessary to receive them from the first grade.</li> <li>• Suggest a segmentation track for business type and industry name that combines students' nuclear major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li> <li>• In the 3rd-4th year of university, a roadmap to build experiences and personal networks is prepared.</li> <li>•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general employed.</li> <li>• There is also a lot of demand for social enterprise, social venture, and appropriate technology-related education.</li> </ul>

는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 교수자로 하여금 이에 부합되는 교과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창업교육에서는 창업하는 기술과 방법만을 제시하였는데 미래 창업교육에서는 창업하는 기술 외에도 기업가적 역량, 사회적 문제발굴과 참여와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창업 융합 전공 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된 트랙을 개설하고자 한다. 셋째, 교수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목격되었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창업교육을 통한 한 개인의 실행적 변화를 교육의 성과로 두고 있기에 교수자는 전달식 강의보다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다 전달력 있게 학습자들에게 교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4.3 창업융합전공 트랙 비전과 목표

전공 목표에 따라 벤처창업트랙, 기업가정신융합트랙, 소셜 벤처 활성화 트랙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고 각 트랙별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참여전공을 표기하여 참여전공 소속 학과 학생들의 창업융합전공 관심도를 높이고 학문적 실무적 차원에서의 융합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트랙별 교육 목표 및 참여전공과의 연계성은 Table 7에서 제시하였다. 한편, 각 트랙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직무 관점이 아닌 지식(skill), 태도(attitude), 기술(skill) 역량으로 구분하여 전공능력요소를 다음 Table 8에서 제시하였다.

### 4.4 창업융합전공 트랙 전공 능력 요소

Table 7. Educational Objective

Major	track Educational Objective
Venture Star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 successful entrepreneurship patterns based o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nture ecosystem</li> <li>Cultivating professional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quired for entrepreneurship execution</li> <li>Cultivating the ability to discover and implement items from a convergent perspective</li> </ul> (Participating Major)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Intellectual Property, Jewelry Design, Sports Industry Management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arn the convergent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manifest in the organization</li> <li>Enhanc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 to lead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discover new business opportunities</li> <li>Cultivate entrepreneurship competency by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in detail</li> </ul> (Participating Major) Management Information,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ccounting and Tax
Activating social ven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ultivating academic and practical knowledge level in social economy and social venture</li> <li>Establish a plan to create social and economic value to activate social venture</li> <li>To cultivate insight and ability to practice complex and diverse social issues</li> </ul> (Participating Major) Social welfare, youth, correctional protection

Table 8. Major Competency Element

track	capability	Major Competency Element(Learning content)
Venture Start-up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ing the venture ecosystem,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li> <li>Globalization of industry and global start-up</li> <li>Practical practice (core issues by start-up stage), how to raise funds for start-up companies</li> </ul>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iness opportunity capture and commercialization, business plan writing technology</li> <li>Business modeling methods, business communication</li> </ul>
Entrepreneurship convergence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dentification of changes and trends in industrial structure</li> <li>Sustainable growth, organization management method, global consumer trend survey</li> </ul>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iness opportunity capture and commercialization, business plan writing technology</li> <li>Business modeling methods, business communication</li> </ul>
Activating social venture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hip</li> <li>Appropriate technology and solutions to social problems</li> </ul>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iness opportunity capture and commercialization, business plan writing technology</li> <li>Business modeling methodology, business communication</li> </ul>
Track Common	Attit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ntrepreneur thinking and behavior, understanding of human</li> <li>Occupational Awareness and Occupational View, Creativity and Leadership</li> </ul>

## 5. 결론

전 세계적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K대학에서도 지난 2014년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교내의 다양한 창업 관련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양적 성장은 꾸준히 이루고 있지만, 이제 보다 질적 성장과 도약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 일환으로 K대학에서는 창업융합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내 트랙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시대 변화와 사회 수요에 기반하여 창업융합 전공 내 트랙을 개설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후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제공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수요에 충족되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그 중 창업교육의 핵심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onstadt의 New School 모형, McMullan와 Long의 전략적 독창성 시각, Vesper의 창업관, Shepero의 기업가적 사건 모형 등을 분석하여 K대학에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의 내용에 대해 Vesper가 제시한 대로 사업의 시작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 창업기업의 성장관리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Shapero & Sokol이 제시한 대로 창업교육이 기존 경영학 범주와 차별화되고 창업 자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 개인적 특성, 창업 외부환경의 이해, 사업 활동의 시작을 유발하는 기회 창출과 창의성 개발 등이 제시의 필요성 그리고 창업교육은 기존 경영학분야에서 다소 소홀히 했거나 간과해왔던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체험학습, 새로운 것은 창조해내기 위한 실습, 분석적 사고를 통한 실행 계획수립을 위한 활동 등 선행연구를 통해 K대학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이어 환경분석을 실시하여 K대학의 창업융합전공을 위한 강약점, 시사점 등을 파악하였고 교수자, 현장전문가, 교육수요자(학생)를 대상으로 서면 혹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창업교육에서의 주요한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3대 트랙을 도출하

였고 트랙별 전공역량 및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전공명 변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당초 창업융합 전공명을 기존 창업융합 전공에서 앙트레프레너십 융합 전공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창업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역량이 창업 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기업가적 인재(기업가정신을 지닌 인재)를 조직에서는 선발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본 전공에서는 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업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고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함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모두 포괄하며 관련 전공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창업융합전공에서 앙트레프레너십융합전공의 전공명을 변경하고 관련된 세 종류의 트랙(벤처창업, 기업가정신융합, 소셜벤처활성화) 개설을 제안하며 전공비전, 진출분야 등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K대학 비전달성에 기여하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창업교육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 많은 창업교육 기관 및 대학에서 창업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양질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사회 수요에 맞는 부합되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트랙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트랙 설계 모형은 향후 다양한 전공과 학과에서 도입하여 보다 수월하게 트랙을 개설하여 사회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연구는 K대학 창업융합전공의 트랙 개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적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보다 실효성있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각 트랙의 목적과 추구하는 역량 그리고 진출 분야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융합전공의 트랙별 교과별 목표, 교과과정 로드맵, 세부 커리큘럼 등을 설계·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차원에서 최근 혁신적 교수법이 강조되고 있기에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 마다 적합한 교수법을 매칭시키는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융합 전공에 참여한 기존 7개의

참여 전공과 교과목들이 창업 융합 전공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7개의 참여 전공 학생들의 창업융합전공은 지난 4년간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전공과 창업융합전공의 연계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참여 전공(7개) 학생들이 창업 융합 전공을 복수 혹은 부전공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교과목이 창업 융합 전공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19). *Master plan for diagnosing basic competencies of university*,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Sejong City : Ministry of Education.
- [2] H. Y. Lee. (2011). Development of a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Convergent knowledge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5(2), 11-37.  
DOI : G704-SER000001745.2011.5.2.005
- [3] B. S. Hong. (2011). Social demand to College's education and search of alternative.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3(2), 51-78.  
DO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16899>
- [4] M. S. Lee & S. B. Won. (2013). Educational Needs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The case of founders, prospective founders and non-founder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2(2), 99-134.  
DOI : G704-000975.2013.32.2.004
- [5] Y. D. Mok. (2011).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doctoral dissertation. CA University. Seoul.
- [6] W. H. Kim. (2008). Five Tracks of General Education Program : Informatiozation, Globalization, Character-building, Career Develop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2(1), 33-61.  
DO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00400>
- [7] Kyonggi University. (2019). *Gyeonggi Vision 2020, Phase 2 Revised Action Plan*, Suwon City : Kyonggi University.
- [8] R. Ronstadt.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9] Y. D. Mok. (2011).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doctoral dissertation. CA University. Seoul.
- [10] K. S. Han. (2007). The Systematization Plan of 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47(1), 379-405.  
DOI : G704-001274.2007..47.006
- [11] R. Ronstadt.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12] W. E. McMullan & W. A. Long. (19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nine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61-275.
- [13] J. S. Jong & K. S. Min. (2008). The Present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Educational Course In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3(2), 1-29.  
DOI : 10.16972/apjbve.3.2.200806.1
- [14] K. R. Cho. (2011). *Development on Education Curriculum for Entrepreneurship : in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Case of Babson College)*. School. master's thesis. GNTHCH University. Jinju-Si.
- [15] W. E. McMullan & W. A. Long. (1987).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nine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61-275.
- [16] K. H. Vesper. (1988). Entrepreneurial academics--How can we tell when the field is getting somewhe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 1-10.
- [17] Y. D. Mok. (2011).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Curriculum Development Model to System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dergraduate*. School.doctoral dissertation. CA University. Seoul.

임진혁(Jin-Hyuk Im)

[정회원]



- 2003년 2월 : 송실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11년 8월 : Ateneo Professional School(경영학석사)
- 2017년 8월 : 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경영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융합 교양대학 교수(창업경영학분야)
- 관심분야 : 기업가정신 교육, 벤처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
- E-Mail : [ijh@kyonggi.ac.kr](mailto:ijh@kyonggi.ac.kr)

권 혁(Hyuk-Kwon)

[정회원]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경영학사)
- 2015년 2월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무역학석사)
- 2018년 2월 :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경제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산학

협력단 교수

- 관심분야 : 창업, 전자무역, 국제통상
- E-Mail : k21720222@kku.ac.kr